

주의 세례 축일

# 숲 정 이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 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코 1, 11).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기도서 239면 (B해)  
제1독서 : 이 사 42, 1-4, 6-7  
제2독서 : 사 도 10, 34-38  
복 음 : 마 르 1, 7-11

□ 강론



## 물길의 삶

유 종 환 신부

물은 흘러내리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이루만져 준다. 울퉁불퉁한 돌맹이든 가시돋힌 풀잎이든 더러운 오물이든 무엇이나 상관하지 않고 어루만져지며 도도하게 흘러내린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세례성사의 중요함과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혹에 부딪힌다. 때로는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지으면 죄의 먼지나 때로 더럽혀진다. 인간이 추해질 때엔 옳게 바라보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중에 있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과욕을 부리게 되며, 어둠 속으로 자꾸만 빠져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성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고귀한 성사다. 우리 영세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하느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 거룩한 지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소명이다. 물 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싫고 미운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산도 하지 않고 조건도 없이 물길처럼 만나는 모두에게 사랑을 쏟아 준다면 얼마나 맑고 신선한 위치에서 있겠는가.

세례자 요한은 물 처럼 맑고 신선한 길을 걸으셨다. 걸칠만한 옷도 변변치 않고 배를 채울만한 음식도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삶이었지만, 눈빛은 하느님을 직시하였고, 목소리를 항상 정의로웠다. 우리 신앙인들도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을 직시할 수 있는 신앙의 눈과 진리를 위해 몸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부정부패가 범람하는 세상, 이처럼 갖가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선 물에게서 넓고 깊은 인생을 배워야 한다.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진실과 사랑을 심어야 한다.

오 주님 물이 만나는 모두를 어루만져 주듯 우리도 만나는 모두를 사랑으로 포용하게 해주시고, 물이 더러운 오물을 깨끗이 씻어주듯, 우리도 세상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금마천주교회)



## 섬기는 자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그 어머니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셨다.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마태오 20장 20~21절 참조) —이 이야기는 얼핏 보아 좋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심리, 특히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잘 그리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아 지금은 대학입시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극도로 긴장해 있는 때이다. 부모의 마음이야, 또는 당사자의 마음이야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하는게 틀림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문은 너무나 좁아서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낙방의 쓴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것, 돈·권력·명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선거동안에 소위 지역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가 명백해진다. 경상도 쪽에서 정권을 쥔 제3공화국 때부터 소위 노란자위를 그쪽에서 많이 차지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심해진 것은 현 정권인 제5공화국 때부터이다. 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혼란은 뿌린자가 거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예수께서는 좋은 자리에 앉겠다는 형제들에게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올해에는 높은 자리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또 다시 전라도에, 속된 말로 벌불일없는 자리만 주어지는 일이 없기를 빈다. 능력이 맞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길 빈다.

## 숲 정 이 산책



당신은 몇 사람을...?

□ 주의 세례축일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메시아로 축성되었다는 것은 그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으로 나약하여 갈망질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시는 뜻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시작이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새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결손한 태도로 자신을 세례시키심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며, 인류를 몰로 씻기시고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의 사생활을 끝마치시고 하느님의 보증을 받고 공생활에 드시는 계기를 이룬다는 여러 측면의 뜻이 있다.

세례성사는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죄상태(原罪)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정화하여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세례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요,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되고 모든 죄와 벌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성사라고 대부분 교리서는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성세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죄를 벗어난 인간상태로 승격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례성사를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맡긴 최초의 성사이다(마태 28, 19). 곧 성세성사는 성령의 은총으로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는 신앙의 성사인 것이다.

“인사드립니다”

1988년 무진월단에 우리 교구의 모든 형제자매님께 그리고 모든 존경하올 신부님, 수녀님께 인사드립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제가 1988년 정초, 교구 평협 정기총회에서 예상치도 않은 평협 회장직에 선출되어 주교님 인준을 받게 되니 저는 교회에 대한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꼼꼼히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에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겸손되어 주님께 기도하며 저의 임기를 다할까 합니다.

우리 교구는 자랑스럽게도 순교의 후예들이 세운 방인 자치교구로서 작년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이제 새삼스럽게 발을 내딛는 첫 해입니다. 전국 어느 교구보다도 풍부한 젊은 사제들을 모시고 있으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세 분의 신부님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교구의 약진하는 모습을 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 불구하고 깊이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여 볼 때, 과거 가난하게 살던 지난날들보다 사제와 평신도, 평신도와 평신도, 사제와 사제간에 일치모습이 무너졌다고 자인하고 싶습니다.

지난 80년 초, 유신시절, 우리 사제단과 주교님과 일치된 모습과 또 우리 평신도들이 그 목자들을 따라서 일치단결하여 강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교회의 일치가 더욱 절실할 때가 아닌가 깊이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평신도들은 겸허하게 목자들을 따르고 사랑하며 주교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 양들을 이끄시는 사제단은 현실안일주의 나태된 모습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 불의와 비리가 만연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후예, 사도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예언적응을 용감하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때보다 우리 평신도와 사제단의 진정한 일치와 더욱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친호성지, 피정의 집, 성직자모지 등 많은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신 전임 평협 임원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업적은 전주교구 역사에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구의 계속사업으로 원활한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교우들과 오직 깊은 신앙에 감증을 느끼는 수많은 교우들을 위한 신앙쇄신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역자와 평신도들의 협력하에 말씀 중심의 신앙교육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평신도들은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주교님을 위시한 사제들을 따르며 순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우리 평신도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평신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는 평신도와 사제단간에 큰 머슴으로서 교량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우리 교구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988년 1월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 회장 안득수

전주시 서노송동 631-3  
(코아백화점 앞)

**현대 미용 학원**

김 금 순

☎ 주 4-9206  
야 74-1383

콘택트 렌즈

**군산 안과**

군산시청 사거리  
(성심치과 옆)

원장 이선구(루까)

차금옥(아베스)

☎ 42-2171

금성서비스 지정점

**금성제일대리점**

VTR·냉장고·TV·세탁기·오디오·가스렌지 외  
가전제품 일괄

할부판매 주부사원 모집

대표 이동근(안드레아)

전화 3-0740

□ 이 전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썬타**

전주 전교앞 신호등 옆

전화 84-4805

윤베드로



# 교 구 소 식

1. 사제·부제서품자 피정 : 11일~16일 ※ 서품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교구 재정심의회 : 12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3. 초등부 교리교사 동계연수회 : 일시-25일 오후 1시~27일,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미사·필기·세면도구·침구
4. 제3기 교사학교 개강식 : 일시-11일(월)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5. 성소자 피정 : 일시-26일(화)~27일(수), 장소-천호 피정의집 대상-중3부터 고·대·일반, 집결-가톨릭센터 26일(화) 오후 2시, 회비-4천원
6. 프란치스코 재수행제회 전주지구 협의회 총회 : 일시-24일(일) 9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참가범위-전주지구 협의회 산하 전회원 회비-1,500원, 준비물-지침서·성서·성가집
7. 전주지구 소년부리아 회의 : 10일(일)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천주교회 사제관 2층(삼왕뽑기 행사 있음)
8. 전주지구 소년 부리아 연충친목회 개최 : 11일 오후 2시
9. 베소라 성서(고급반) 개강안내 : 강사-김정원 신부 오전반(모세오경)-12일(화) 오전 10시~12시 오후반(신약)-12일(화)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비-매주 1,500원, 문의-베소라성서 연구원(85-4978)
10. 남전주 주일학교 졸업반 6학년 피정 : 일시-1월 22일~23일, 장소-충광 제2캠 프장 대상-남전주 각 본당 6학년 졸업반 남·여 어린이, 참가비-1인 6천원
11. 맹아학생 모집(충주 성모학교) : 모집기간-2월 1일~2월 28일 대상-맹아동(교육가능한 아동), 약시(일반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아동) 모집인원-유치부(만 5세~6세) 10명, 초등부(만 7세~12세) 10명 특전-전원 기숙사 생활(무료), 문의-충주 성모학교 사무실(0441) 43-1374 지도-사랑의 씨튼 수녀회
12. 문정현 신부 지난 4일부터 단식 농성중!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단식 농성하시는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 ✿ 잡 간

### 신앙교육에 관심을-

교구단위, 혹은 본당단위, 그리고 제단체별 신앙교육이 한창이다. 특히 천호 피정의 집에서는 피정 및 신앙교육 일정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피정이나 신앙교육 일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방학중이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피정이 본당별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성인들을 위해서도 남성, 여성 꾸르실로, ME교육, MBW 각 본당별 사목회 연수, 부녀회 피정 등 다양한 신앙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신앙교육, 중요한 문제다. 올바른 신앙교육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깊은 영적인 지식을 쌓고 그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연적인 지식, 또는 일반 사회적인 지식도 배우기 힘든데 초자연적인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더욱 배우고 깨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정도 그렇다. 삶의 터전인 복잡다단한 세상살이를 잠깐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삶을 되돌아 보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새롭게 가늠하고 추스려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사는 데 있어서의 슬기요 현명인가! 교구단위나 본당단위로 계획되는 피정교육에 관심 갖고 한번쯤 참여하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위해서도...

## 요심이 (753) 김병오



### □ 1분명상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II고린 4, 17).

### 명동피부과의원

### 직 원 모 집

1. 자격 : 여상졸업자, 신앙심이 돈독한자, 20세 미만 여성
  2.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마감일 : 1월 15일까지 본인 직접 접수 요망
- 제출처 : 천주교 전주교구청 관리국 85-0041-3

### 내과 전문의

##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 앞)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 전북 의료조합 지정

##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 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다)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꽃배)  
위치 : 대학교앞 덕진성당옆  
주소 :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 72-2665·75-3533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지난주 봉헌금: 243, 870원(내 동: 19, 350원)
교무금: 479, 000원 수요헌금: 36, 410원

(충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 반미사안내: 13일 오후 8시, 9반-김옥순(99426)
1. 예비자교리 개강: 오늘부터 시작
교리시간-송정이 4면 본당 소식란 참조
2. 모임: 꼬미씨움-오늘 오후 2시
상지회-13일(수) 저녁미사 후
반장회합-15일(금) 어머니미사 후
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3. 초등부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수녀님께 문의
(남자 교리교사 우선)
4. 성체회 성체조배: 지속적으로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세자(성탄반) 사진: 사무실에 서 구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 202, 970원 교무금: 1, 748, 500원

- 1. 시목회 임원개편: 회장-소병을, 부회장-엄의봉·이남연, 총무-김은식, 선교부장-이준희·차장-김대준, 전례부장-심상기·차장-이건창, 재정부장-김영구·차장-이안근, 교육부장-김창호·차장-박희성, 홍보부장-최용규·차장-신윤선, 청소년부장-소태영·차장-박세영, 사회복지-김창곤·차장-송기성, 애령부장-김인철·차장-송준의·노남식·성경식, 여성부장-이완자·차장-배종립, 구역부장-김옥정·차장-박혜숙
2. 푸르실리스타 탄설: 김창호·송기성 형제
3. 모임: 바울로회-10일 공식미사 후
4. 봉헌의날: 매월 셋째주일은 교무부 봉헌주일입니다. 나누어 드린 봉투를 활용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3기 교사학교: 1월 11일~16일, 센터 4명 참가
6. 본당 달력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7. 금주 본당청소: 사랑하을 모친pr~16일 오전 11시
8. 금주전례: 해설-김광자·김은식
독서·기도-전담구역 주관
차주전례: 해설-서복자·이건창
독서·기도-셋별pr 주관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지난주 봉헌금: 276, 820원 교무금: 220, 0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금요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청년연합회 총회: 오늘 오후 3시
3. 차주는 선교주간: 푸리아 회의-차주 오후 2시
4. 모니카회 월례회: 14일 오전 10시
5. 남성 제27차 푸르실로: 이정승 형제 참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생미사·연미사 미사예물을 봉헌합니다
7. 교무금: 월납제를 지킵시다
8. 금주복사: 이창성·박희정 차주: 윤기환·최장수
9. 금주봉헌: 김중수 부부 차주: 이영구 부부
10. 미사안내: 사랑하오신 모친pr
차주: 모든 성인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658, 780원 교무금: 311, 000원

- 1. 예비자교리(2월반) 모집할: 주일반·목요일반
2. 모임: 오늘-울뜨레야(공식미사 후), 초등부 교리교사 정기총회(오후 5시), 12일-사목회(오후 8시)·자모회(오전 10시), 구역모임-13, 14, 15일 실시
다음주일-푸리아 연차총회(오후 2시)
3. 어머니교실: 매주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회비 2,000원, 접수-사무실)
4. 중등부 전 사랑나눔: 11일~12일
5. 순정이 문화제(중·고·대학부): 15일 오후 6시~9시
6. M.E 주말교육: 15~17일(천호)
7. 중등부 면담일 오후 5시: 화-중3남자, 목-중3여자
8. 개편 가톨릭기독교서 판매: 대 2,200원 소 1,500원
9. '87년 교무금 미납자: 납부하시고 88년 교무금 신입
10. 금주 본당청소: 화-평화의모후, 토-애덕의모후
11. 미사안내: 평화의 모후
12.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오정중·신덕순
봉헌·기도-신천우·권정신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박영근·장정신
봉헌·기도-양승진·홍신욱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지난주 봉헌금: 493, 495원 교무금: 93, 000원
교무금 미수금: 520, 5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 오늘은 주의 세례축일입니다.
1. 오늘의 모임: 성화회-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베드로회-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2. 금주의 모임: 햄사: 가리마스 자모회-12일 오후 2시
성심부녀회-13일 오전 10시
3. 예비자교리반 개강: 21일(목요일) 저녁 7시30분(화요일) 주부반은 26일부터 시작함
4. 중·고생 방학 특별교리(학사님 지도): 10~16일까지
5. 주의 봉헌축일(2월2일)에 초 봉헌하실 분은 16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가정초,제대초)
6. 사진 찾아가세요: 견진, 성탄 영세사진
7. 금주전례: 해설-박기자, 복사·독서-베드로회 주관
기도-덕진10반 주관
차주전례: 해설-김후만, 복사·독서-성화회 주관
기도-덕진11반 주관
8. 금주 본당청소: 인자하신 모친pr-16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964, 880원 교무금: 929, 800원

- 1. 사목회 임시총회: 10일 공식미사 후
2. 예비자교리: 매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일 오전 9시(학생)
3. 금년은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4. 앞좌석에 앉아 미사에 참석합니다
5.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으면 알려주세요(구역장)
6. 가정심방(자녀 영세자): 12~16일 오후 1~5시
①12~13일-인후아파트구역 ②14~15일-우아아파트구역 ③16일-주택(우아동·인후동)
7. 일상기도문 구입하여 기도생활 하세요(새 영세자)
8. 가톨릭 기도서 새로 나왔습니다
9. 켈마회: 14일 어머니미사 후
10. 영세하신분 주민등록번호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11. 금주전례: 해설-이순영, 독서·기도-정수일·강경희
봉헌-김진태 부부, 안내-나동진·박장윤
차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기도-박남규·오금자
봉헌-류계웅씨 부부, 안내-경희중·김진영
12. 지난주 봉헌금: 515, 610원 감사합니다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 \* 1988년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신청해 주세요
1. 각 단체별 88년도 계획서: 오늘까지 제출바랍니다
2. 예비자교리: 성인-목 오후 7시30분
중고생-토 오후 6시
3. 생활교리: 공식미사 후-수녀님 지도
4. 모임: 안나회·글라리아-오늘 공식미사 후
푸리아 회의-차주 공식미사 후 2시
동성회-16일 오후 5시
5. 금주 구역미사·모임: 12일 미사-동산6구역, 모임-광복 3구역, 13일 나눔잔치-원반월, 15일 모임-성덕, 동산2구역
6. 청소: 평화의 모후, 방문-하늘의 문
7. 애령회에 뜻이 있으신 분은 1월17일까지 사무실에 문의바람: 조용기 애령회장
8. 수녀원 신축헌금: 5월 까지 신입액-13, 785, 850원(142세대) 납부액-12, 384, 850원
9.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이의준 ②신문자
차주전례: 해설-김택천, 독서-①최연조 ②김영원